사회적 지지 및 대처방식이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Styles on Quality of Life in Abused Wives

김정란** · 김경신
전남대학교

Kim, Jeong Ran · Kim, Kyeong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present study were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wife abuse, social support, coping styles, and quality of life, and to examine how abused wives' social support influences coping and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144 abused wives in Gwangju, Kore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Problem-focused coping and seeking of social support were different by the wife abuse.

2. Abused wives' quality of life was positively related monthly income, social support, problem-focused coping, and wishful thinking coping. 3. The results of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ocial support had the strongest impact on abused wives' quality of life. And the problem-focused coping, monthly income, and emotion-focused coping.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32% of variance of abused wives' quality of life.

Key Words : wife abuse, social support, coping styles, quality of life

Ⅰ. 서론

197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아내학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연구초기에는 학대받은 아내들의 특성이나 성격이 학대발생 요인 중의 일부로 분석되었으나, 현재는 과거와 달리 학대피해의 결과로써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한때는 학대받은 아내들이 피학대 증후군 환자로 간주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아내학대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신체건강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기능 손상, 자아존중감 상실, 결혼불안정성 증가 등을 포함하여 삶의 질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Barnett 등(1997)은 아내학대는 반복되는 두려움과 학습된 무기력의 결과로 여성에게 좌절감이나 우울 같은 정서장애, 문제해결 능력저하와 같은 지적손상, 수동성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같은 자극손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Cascardi와 O'Leary(1992)는 신체적 학대의 빈도 및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피해 여성의 우울증상이 심해진다고 보고하였다. Haj-Yahia(2000)는 학대경험은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울, 불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학대피해 여성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및 우울과 불안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Leonard와 Roberts(1998)는 남편들의 신체적 학대가 아내들의 결혼불안정성과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일하게 심각한 아내학대를 경험하더라도 피해여성의 학대에 대한 반응대처 유형과 피해여성 주변에 존재하는 환경요인에 따라 삶의 질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Mithchell & Hodson, 1983; Kemp et al., 1991; Sullivan et al., 1992; Tan et al., 1995)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학대받은 아내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 이 논문은 2004년 전남대학교 Post-Doc.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Kim, Jeong Ran
Tel: 062) 530-1320, Fax: 062) 530-1329
E-mail: kjr@jnu.ac.kr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회체계와 접촉을 하고 있는 여성은 배우자의 학대로 인해 초래되는 유해한 심리적 영향에 비교적 덜 민감하게 되며,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그리고 아내학대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학대받은 아내들의 학대반응 방식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초기에는 반복적인 학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여성의 인지된 통제를 훼손시켜, 학대에 대해 체념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는 Walker(1979)의 학습된 무기력 모델에 영향을 받아 진행되었다. Finn(1979)은 학대받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고 문제해결적 대처를 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Mithchell과 Hodson(1983)은 학대피해 여성들은 회피지향적 대처를 사용하고, 이러한 대처전략이 배우자의 학대수준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학습된 무기력 모델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Bowker, 1984, 1987; Gelles & Straus, 1988; Gondolf, 1988)은 학대 피해여성들이 학대에 대해 한결같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Gelles와 Straus(1988)의 연구에서는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여성의 69.8%가 가정외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Gondolf(1988)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평균 3회 정도 사회적 자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대에 대한 대처방식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Clements와 Sawhney(2000)는 정서중심적 대처수준이 높고 문제중심적 대처수준이 낮은 학대피해 여성일수록 학대에 대한 자기비난이 많고 불안과 혼란의 수준이 높은 반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는 피해여성일수록 절망감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Sullivan과 동료들(1992)은 사회적 지지가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지지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학대적 상황을 종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지적인 자원은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대처기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극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가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학대받은 아내의 사회적 지지 및 대처와 삶의 질 사이의 관계적 특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대받은 아내의 사회적 지지와 대처, 삶의 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아내학대 피해여성이 자신의 환경체계 안에서 사회적 지지를 확대시켜 학대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수립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대처가 어떠한 방식으로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학대받은 아내들을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과 복지정책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내학대 피해에 따른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삶의 질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사회적 지지 및 대처방식이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아내학대 개념

아내학대 개념에 대한 논의는 아내학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진행되었는데, Kurz(1989)는 아내학대 연구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나는 가정폭력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권주의적 관점이다. 우선 가정폭력적 관점은 다양한 가족갈등에 대한 가족학자들(Gelles, 1974; Straus, 1971)의 관심에 의해 성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아내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유형이며, 가족 내부의 갈등, 스트레스, 또는 관계상의 부적응이나 역기능이 학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학대자와 피학대자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보다 가족체계의 맥락에서 성중립적으로 이해되며, 폭력은 피해자의 성(gender)이 전제되지 않은 채 부부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폭력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폭력을 유지시키는 사회적 맥락보다는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이를 지칭하는 용어에 있어서도 배우자 학대, 파트너 학대, 부부폭력과 같은 성이 전제되지 않은 중립적인 개념들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여권주의적 관점은 남편에 의해 아내에게 자행되어지는 폭력의 특수한 요소에 역점을 두고 소규모의 질적 연구(Dobash & Dobash, 1979; Roy, 1982)에서 출발하였다. 가부장제 가족의 역사적 전통,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대한 구조분석, 학대받은 여성의 탈출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억압에 초점을 둔다. 이 관점에서 아내학

대의 원인은 전통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발생하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이며, 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도구적 폭력에 해당된다. 따라서 학대자와 피학대자가 뚜렷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학대발생과 유지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은 학대남성에게 있다. 또한 아내구타, 매맞는 여성 혹은 아내와 같이 성을 전제로 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아내학대의 사회구조적인 맥락을 명확히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여권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아내학대를 '남편에 의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신체적 및 비신체적 위해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법률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신체적 및 비신체적 위해 행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은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심리적 학대는 아내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포에 몰아넣고, 심리적인 해를 주는 행위가 포함되며, 신체적 학대에는 가볍게 밀기에서부터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폭력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성적 학대는 원치 않는 성행동을 강요하는 것부터 완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2.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속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은 항상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이를 통해 지지를 받으면서 그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이렇듯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는 그 근본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다는 데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학자마다 복합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Cohen(1987)은 스트레스의 충격을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 대처의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면서 이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자아존중감 지지(정서적 지지), 문제가 되는 사건을 정의하고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평가적 지지,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타인의 존재 여부에 관한 소속감 지지, 경제적인 도움 및 물질적 자원 등을 나타내는 물질적 지지 등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대처의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제로서 기능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완충모델은 학대의 스트레스적 특성으로 인해 학대피해 여성에 관한 연구에 더욱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선행연구들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며,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중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Cohen과 Willis(1985)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역할을 지지하면서 학대받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소속감 지지, 도구적 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는 학대가 자신의 대처능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하며, 상황을 재평가하고 부적응 반응을 막고, 효과적인 대처전략 수립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선행연구들(Cohen & Willis, 1985; Mitchell & Hodson, 1983; Tan et al., 1995)은 사회적 지지가 학대받은 여성들의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이 홀로 고립되어 있는 여성에 비해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사회적 지지는 학대 피해여성들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Cohen과 Willis(1985)는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긍정적인 사고, 안정성,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관계망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홀로 고립된 여성의 경우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거나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Mitchell & Hodson, 1983; Tan et al., 1995)에서는 학대받은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여성들의 심리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대처방식

대처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고 부담스럽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내, 외적 요구를 조절하기 위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개인은 환경자극을 지각하고 조직하는 독특한 개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개인적 구조는 외적인 환경자극에 반응하는 의식적인 전략이다.

개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하느냐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서로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Moos와 Billings(1982)는 대처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평가중심적 대처는 상황의 의미규명, 논리적 분석, 인지 재정의 등을 포함한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나 가까운 친인척, 동료, 배우자 등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리고 대안적 계획을

세우거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등의 방식을 말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정서상태를 다스림으로써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충격을 완화하거나 갈등에 대해 긍정적 사고하기, 자부심 갖기 등을 취해 문제상황으로 인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리고 Lazarus와 Folkman(1984)은 적극적인 대처(직접적 행동)와 소극적 대처(완화전략)로 구분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처는 상황이나 개인의 행동, 혹은 둘 다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소극적인 대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 없이 더 나은 기분을 만들거나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대처방식을 4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개인-환경 관련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문제중심적 대처, 문제로부터 초래되는 감정상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정서중심적 대처,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이나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소망적 사고 대처로 구분하였다.

학대받은 아내들의 대처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Walker(1979)의 학습된 무기력 모델에 근거하여 학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결과가 다수를 이루었지만(Finn, 1979; Mithchell & Hodson, 1983), 최근 들어서는 학대 피해여성들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이 다양하다고 보고되고 있다(Bowker, 1984, 1987; Gelles & Straus, 1988; Gondolf, 1988; Sullivan, 1991). 이들은 여성들의 학대에 대한 반응은 대처전략의 성공에 대한 기회와 비용을 고려한 여성의 평가에 의해 형성되며, 여성들이 이용 가능한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이 학대상황을 통제가능한 것으로 인지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가 증가하는 반면, 상황을 변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지할수록 정서중심적 대처를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4.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용어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으며, 통념상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정의 또한 가지고 있지 않다. Andrews(1974)에 의하면, 삶의 질은 "개인이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생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 김상균(1996)은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윤기 있게 만들어 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사고가 작용하는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은 상대적 개념으로 바람직한 삶, 또는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학문의 특정 범주에 포함되기보다는 가정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 다학문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Romney 등(1994)은 삶의 질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우선, 삶의 질에 대한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과정이 수많은 개념적 여과장치와 언어를 통해 다양하게 해석가능하고, 다음으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 공동체 내에서의 평균적인 인생주기, 심리적 과정이 환경요소와 개인의 가치체계의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학자들이 최초로 찾은 합일점은 어떠한 정의를 적용하던 간에, 개인의 삶의 질은 외적인(객관적) 실체와 그에 대한 내적(주관적) 인식에 의해 평가된다는 것이다(Dissat & Deller, 2000). 객관적 요소, 즉 사회적 지표는 주어진 문화집단 내에서의 고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 표현되며, 주관적 요소는 '개인의 생활이 함축적이거나 명백한 내적 표준 혹은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로써 삶에 대한 행복감, 만족감, 자립감, 성취감, 문화적 풍요로움, 안전, 스트레스, 불만감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및 인지상태를 의미한다(Evans, 1994).

따라서, 학자들은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결합하여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는데, Andrew와 Withey(1976)는 그들의 연구결과 삶의 질은 삶의 여러 가지의 관심 영역 중에서도 자신에 대한 평가 및 가정영역의 평가와 가장 높은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객관적 요소에 관한 평가도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비교적 관계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의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Park, 1992)에서 객관적 지표보다 주관적 지표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나 주관적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Szalai(1980)는 삶의 질을 "여러 가지 생활측면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나 행복감"으로 정의하면서, 삶의 질 연구를 위한 지표는 객관적 지표 외에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평가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그러한 평가와 느낌은 삶에 대한 주관

적 만족과 안녕감, 행복감 등으로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아내학대가 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은 학대 이후 겪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증후군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결혼만족도와 우울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분석한 김정옥 등(1993)의 연구에서 아내학대 피해여성이 비피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elles와 Straus(1988)는 학대당한 여성이 학대를 당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감은 4배정도 높고, 자살충동은 2.5배 정도 더 높게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대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Housekamp와 Foy(1991)의 연구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수준은 폭력피해의 정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 Kaslow 등(1998)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비신체적 학대 역시 자살충동, 심리적 디스트레스, 무기력, 음주, 약물복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아내학대는 피해여성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인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삶의 질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Mitchell & Hodson, 1983; Tan et al., 1995), 우울을 감소시키며(Mitchell & Hodson, 1983), 궁극적으로 피해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Tan et al., 1995) 보고하고 있다.

Mitchell과 Hodson(1983)은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지배력, 우울,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삶의 질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지지체계의 규모, 학대에 대한 지지체계의 반응 특성, 지지체계의 기능 등이 학대받은 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Tan과 동료들(1995)의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인 복지감, 우울, 통제력 등 여성의 삶의 질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지체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통제력 수준이 높으며, 친한 친구들의 수가 심리적 복지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여성이 우울감이 낮고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만족감은 지지체계의 규모와는 관련이 없는 반면, 친한 친구의 수와 다양한 방면에서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학대 피해여성들의 대처방식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Clements & Sawhney, 2000; Follingstad et al., 1991)은 효과적인 대처가 피해여성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하고 있다. Clements와 Sawhney(2000)는 정서중심적 대처수준이 높고 문제중심적 대처수준이 낮은 학대피해 여성일수록 학대에 대한 자기비난이 많고 불안과 혼란의 수준이 높은 반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하는 피해여성일수록 절망감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Walker(1983, 1979)는 비효과적인 문제중심적인 대처의 사용보다는 오히려 효과적인 정서중심적 대처의 사용이 여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와 아내학대에 대응하는 대처방식 역시 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대상은 남편의 학대로 인해 전국에 소재한 아내학대 피해자 쉼터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나 여성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한 아내학대 피해여성 144명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0.73세이며, 남편연령은 44.44세였다. 본인과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192.87만원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아내학대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표 2>), 학대 피해기간은 1-5년 및 6-10년 사이가 각각 28.2%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학대하는 경우가 59%였다. 피해자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의 경우 현재 1-15일째 입소하고 있는 경우가 30.9%로 가장 많았으나,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12.7%나 되어 평균 입소기간은 80.46일로 나타났다. 학대관련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심리적 학대 3.42점, 신체적 학대 2.42점, 성학대 2.05점, 그리고 전체 학대는 2.64점을 나타내었다. 즉, 피해시설 입소여성들은 심리적 학대는 일년에 5-6번 이상,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는 1년에 3-4번 이상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내학대 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N(%)	항목	구분	N(%)
본인연령	20대	13 (9.6)	남편연령	20대	6 (4.5)
	30대	50 (36.8)		30대	29 (21.6)
	40대	54 (39.7)		40대	61 (45.5)
	50대	18 (13.2)		50대	34 (25.4)
	60대	1 (0.7)		60대	4 (3.0)
	평균 (표준편차)	40.73세 (7.74)		평균 (표준편차)	44.44세 (8.03)
본인학력	초졸 이하	12 (8.6)	남편학력	초졸 이하	9 (6.8)
	중졸	15 (10.8)		중졸	18 (13.6)
	고졸	72 (51.8)		고졸	69 (52.3)
	대졸 이상	40 (28.8)		대졸 이상	36 (27.3)
현재 결혼상태	동거	9 (6.6)	자녀수	없음	5 (3.7)
	초혼	75 (54.7)		1명	27 (20.0)
	재혼 이상	11 (8.0)		2명	77 (57.0)
	별거	30 (21.9)		3명 이상	26 (19.3)
	이혼	12 (8.8)		평균 (표준편차)	1.93명 (0.77)
본인직업	기능·기술직	11 (8.0)	남편 직업	기능·기술직	28 (21.4)
	농·어업직	2 (1.5)		농·어업직	7 (5.3)
	단순노무직	3 (2.2)		단순노무직	13 (9.9)
	사무직	8 (5.8)		사무직	18 (13.7)
	서비스직	18 (13.1)		서비스직	10 (7.6)
	자영업	16 (11.7)		자영업	27 (20.6)
	전문·경영직	3 (2.2)		전문·경영직	13 (9.9)
	주부	71 (51.8)		무직	15 (11.5)
	무직	5 (3.6)			
월 평균소득		192.87만원	본인 평균 결혼연령		27.29세
			남편 평균 결혼연령		30.76세

<표 2> 아내학대 관련 특성

항목	구분	명(%)	항목	구분	명(%)
학대 피해기간	1-5년	37 (28.2)	시설 입소기간	1-15일	29 (30.9)
	6-10년	37 (28.2)		16-30일	19 (20.2)
	11-15년	23 (17.6)		31-60일	15 (16.0)
	16-20년	14 (10.7)		61-90일	10 (10.6)
	21-25년	10 (7.6)		91-180일	9 (9.6)
	26년 이상	10 (7.6)		181일 이상	12 (12.8)
	평균(표준편차)	11.18년 (7.96)		평균 (표준편차)	80.46일 (119.25)
남편의 자녀학대 유무	없다	57 (41.0)	시설 내 자녀동거 유무	혼자 있다	64 (66.0)
	있다	82 (59.0)		자녀와 함께 있다	33 (34.0)
과거시설 이용경험 여부	이용한 적 없다	75 (73.5)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학대	3.42 (1.47)
	이용한 적 있다	27 (26.5)		신체적 학대	2.42 (1.44)
				성학대	2.05 (1.86)
				전체 학대	2.64 (1.37)

생경험이 있는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동일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김정란, 2002)에서는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학대 모두 1년에 1-2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시기와 방법 등의 차이로 정확한 비교분석은 무리가 있으나, 약 2배 이상의 피해경험 차이를 감안해 볼 때 시설입소 여성들의 피해정도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도구

1) 아내학대

아내학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는 Straus 등(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TS-2는 갈등이론에 기초하여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CTS-1을 보완한 것으로 아내학대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협상(6문항), 심리적 학대(8문항), 신체적 학대(12항), 성적 학대(7문항), 상해(6문항) 등 다섯 영역(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상과 상해 영역을 제외하고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세 영역을 측정하였다. '없었다'의 경우는 0점, '일년에 1-2번' 1점, '일년에 3-4번' 2점, '일년에 5-6번' 3점, '일년에 7-10번' 4점, '일년에 11-20번' 5점, '일년에 20번 이상' 6점으로 계산한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학대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심리적 학대 Cronbach's α=.84, 신체적 학대 Cronbach's α=.91, 성적 학대 Cronbach's α=.89, 전체 학대 Cronbach's α=.95 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생활사건이나 우울을 예측하는데 적합한 측정도구인'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지각된 지지의 하위형태는 정서적 지지(9문항), 정보적 지지(7문항), 물질적 지지(4문항), 평가적 지지(5문항) 등 4가지 형태(총 25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지지 Cronbach's α=.92, 정보적 지지 Cronbach's α=.92, 물질적 지지 Cronbach's α=.81, 평가적 지지 Cronbach's α=.89, 전체 사회적 지지 Cronbach's α=.96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분석 결과 4가지 형태별 사회적 지지의 상관계수가 r=.79 ~ r=.9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 사회적 지지로 통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3) 대처방식

조사대상자들의 아내학대에 대한 대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9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처방식 척도를 토대로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62개 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제중심적 대처(21문항), 정서중심적 대처(23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12문항),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6문항) 등 4개의 하위영역(총 6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문제중심적 대처 Cronbach's α=.86, 정서중심적 대처 Cronbach's α=.73, 소망적 사고 대처 Cronbach's α=.81,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Cronbach's α=.78, 전체 대처행동 Cronbach's α=.90 으로 나타났다.

4) 삶의 질

삶의 질은 윤진상 등(1998)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Smithkline과 Beecham의 Quality of Life' Scal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가평정척도로 개인의 내적 개념을 측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유능감(7문항), 정신적 안녕(4문항), 안정성(6문항), 신체적 안녕(4문항), 활력(2문항) 등 5개의 하위영역(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0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삶의 질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8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전국지부들을 중심으로 2006년 2월부터 4월 초순까지 23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4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1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2.0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초통계분석,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아내학대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삶의 질의 차이

아내학대 피해정도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그리고 삶의 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3>),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학대피해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대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문제중심적 대처 및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은 학대의 피해정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의 경우 Weitzman와 Dreen(1982)은 폭력 피해여성은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고립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박미은(1998) 역시 학대상해 정도가 낮은 집단이 상해정도가 높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표 3> 아내학대 피해정도에 따른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삶의 질의 차이

변인	구분	N	M	D	변인	구분	N	M	D
사회적 지지	상	23	3.34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상	23	2.69	B
	중	96	3.35			중	96	3.06	BA
	하	25	3.18			하	25	3.27	A
	F		.43			F		3.27*	
문제 중심적 대처	상	23	2.89	B	소망적 사고대처	상	23	3.67	
	중	96	3.21	A		중	96	3.61	
	하	25	3.32	A		하	25	3.61	
	F		3.51*			F		.12	
정서 중심적 대처	상	23	2.99		삶의 질	상	23	3.98	
	중	96	2.99			중	96	4.84	
	하	25	2.87			하	25	4.52	
	F		.74			F		3.83*	

*p<.05 **p<.01 ***p<.001
※ 집단 집단분류 기준: 상≥M+SD, M+SD>중>M-SD, M-SD≥하

하였다. 삶의 질 또한 선행연구(Housekamp, Foy, 1991)에서는 아내학대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아내학대 피해와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과의 관계는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아내학대 관련 특성에 제시한 학대피해 기간, 시설입소 기간, 학대유형 등에 따른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삶의 질에 대한 차이 및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의 특성상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지는데, 피해시설 입소여성들의 경우 이미 공통적으로 학대피해가 심각하여 학대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나 영향력이 미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사회적 지지 및 대처방식이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나이, 학력, 월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 및 대처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는 대처행동 중 문제중심적 대처(r=.37), 소망적 사고대처(r=.37), 그리고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r=.2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처행동의 4영역간 상관관계는 r=.06 ~ r=.78로 나타났다. 그리고 변인들과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월 사회적 지지(r=.42), 문제중심적 대처(r=.33), 소망적 사고대처(r=.29), 그리고 소득(r=.19)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상관분석 결과 소망적 사고대처는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과 유의한 정적관련성을 나타내었으나, 문제중심적 대처와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r=.78)를 보여 변인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어 이후 통계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 및 대처방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대처양식 순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4> 변인간 상관관계

	나이	학력	월소득	사회지지	문제대처	정서대처	지지대처	소망대처	삶의질
나이									
학력	-.38***								
월소득	.01	.36***							
사회지지	-.08	-.09	.01						
문제대처	-.16	-.02	.03	.37***					
정서대처	-.03	.07	-.04	.11	.27**				
지지대처	-.10	.12	-.08	.21*	.57***	.06			
소망대처	-.04	-.15	.02	.37***	.78***	.20*	.38***		
삶의질	-.08	-.11	.19*	.42***	.33***	-.08	.09	.29**	
M(SD)				3.32 (.81)	3.18 (.62)	2.97 (.45)	3.04 (.82)	3.62 (.61)	4.65 (1.39)

*p<.05 **p<.01 ***p<.001

독립변인들간 상관은 r=.57이하로 나타났고, Durbin Watson 계수(D.W.)는 1.63~1.76을 나타내었다.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투입하였는데, 전체 분산 설명력은 14%였으며, 본인 나이, 본인 학력, 월 소득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1단계에 사회적 지지를 추가하였는데 전체 설명력은 12% 증가한 26%를 나타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모두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변인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소망적 사고대처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유형의 대처양식을 추가 투입하였는데, 전체 설명력이 32%로 6% 증가하였다. 월 소득, 사회적 지지,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가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월 소득이 많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정서중심적 대처행동을 적게 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 나이와 학력은 대처양식이 투입되자 유의미한 영향력이 상쇄되었다. 3단계를 중심으로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β=.33, p<.001)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중심적 대처(β=.26, p<.05), 월 소득(β=.24, p<.05), 정서중심적 대처(β=-.18, p<.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가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Clements & Sawhney, 2000; Cohen & Willis, 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삶의 질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편의 학대로 인해 전국에 소재한 아내학대 피해자 쉼터에 임시 거주하고 있는 여성이나 여성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한 아내학대 피해여성 14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아내학대 피해가 심한 집단이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를 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대를 심하게 받은 여성일수록 학대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유형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으리라 판단한다. 따라서 학대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대처와 내적통제성 향상을 위해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월소득은 학대 피해여성들의 삶의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이미 남편과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경우가 30%를 넘으며, 향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표 5> 사회적 지지 및 대처가 아내학대 피해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

		1단계: 사회인구학적 특성		2단계: 사회인구학특성 +사회적 지지		3단계: 사회인구학특성 +사회적지지+대처방식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인나이	-.05	-.29**	-.04	-.24*	-.03	-.18
	본인학력	-.52	-.32**	-.41	-.26*	-.29	-.18
	월 소득	.00	.32**	.00	.29**	.00	.24*
사회지지	사회지지			.65	.35***	.62	.33***
대처방식	문제대처					.59	.26*
	정서대처					-.61	-.18*
	지지대처					-.20	-.11
R^2		.14		.26		.32	
R^2 변화량				.12		.06	
F-Value		5.74**		9.07***		6.54***	
D.W.		1.73		1.63		1.76	

*p<.05 **p<.01 ***p<.001

었다. 때문에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보다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조건이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립을 원하는 학대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초기에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여성 스스로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지원해주거나 직업을 알선해주는 등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모델에서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역할을 하며, 학대 피해여성들의 심리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주장들(Cohen & Willis, 1985; Mitchell & Hodson, 1983; Tan et al., 1995)이 국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인지하느냐 개인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상담소나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아내학대 피해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이 속한 근접 환경 내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적극 활용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반면, 정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가 학대 피해여성들의 삶의 질에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실제 학대피해 여성들은 본인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관계망이 형성되지 못해 아내학대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피해여성들이 학대상황에 대해 절망하거나 기분 및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해 직면하고,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나 가까운 친인척, 동료 등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본 연구는 아내학대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시설 입소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학대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및 대처방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피해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주제어 : 아내학대, 사회적지지, 대처방식, 삶의 질

참 고 문 헌

김상균(1996). 21세기 삶의 질에 관한 지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김정란(2002). 아내학대에 대한 부부체계적 접근. 전남대 박사논문.

김정옥, 전형미, 정복희(1993). 아내학대가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7-38.

김정희,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행동과학연구. 7, 127-138.

박미은(1998). 매맞은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윤진상, 국승희, 이무석(1998). 한국판 스미스클라인 비챰의 '삶의 질' 척도에 관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7(2), 280-291.

Andrews, F. M.(1974). Social indicators of perceive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 279-299.

Andrews, F. M., Withey, S.(1976). *Social indication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Barnett O.W., Miller-Perrin C.L., Perrin R.D.(1997).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span*. Thousand Oaks, CA: Sage.

Bowker, L.H.(1984). Battered wives and the police: A national study of usage and effectiveness. *Police Studies, 7*(2), 84-93.

Bowker, L.H.(1987). Battered wives as consumers of legal services: Reports from a national survey. *Response, 10*(1), 10-17.

Campbell, A., Converse, P., & Rod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d Sage Foundation.

Cascardi M, O'Leary D.(1992). Depressive symptomatology, self-esteem and self-blame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7*, 249-259.

Clements, C.M., Sawhney, D.K.(2000). Coping with domestic violence: Control attributions, dysphoria, and hopelessnes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2), 219-240.

Cohen, S.(1987).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Ed.),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New York: Lawrence Erlbaum.

Cohen, S., Wills, T.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Dobash, R.E., Dobash, R.P.(1979). *Violence against wives: A case against the patriarchy.* New York : Free press.

Evans, D. R.(1994).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the population at lar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47-88.

Folkman, S., Lazarus, R.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Folkman, S., Lazarus, R.S.(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Follingstad, D.R., Brennan, A.F., House, E.S, Polek, D.S., Rutledge, L.L.(1991). Factors moderat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batterer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81-95.

Gelles, R., Straus, M.(1988). *Intimate violence: The definitive study of causes and consequences of abus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Gondolf, E.(1988). *Battered women as survivors: An alternative to learned helplsness.*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Haj-Yahia M.M.(2000). Implications of wife abuse and battering for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as revealed by the second palestinian national survey on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4), 435-463.

Housekamp, B.M., Foy, D.W.(1991). The assess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67-375.

Kaslow, N.J., Thompson, M.P., Gibb, B., Hollins, L., Meadows., L.A., Jacobs, D., Chance, S., Bornstein, H., Rashid, A, Phillips, K.(1998). Factors that moderate the link between partner abuse and suicidal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3), 533-540.

Kemp, A., Rawlings, E.I, Green, B.L.(1991).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in battered women: A shelter exampl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Studies,* 4(1), 137-148.

Kurz, D.(1989). Social science perspective on wife abuse: Current debates and future directions. *Gender and society, 3,* 489-505.

Lazarus, R.S., Folkman, S.(1984). Coping and adaption. In W.D. Gentry(Eds.), *The handbook of behavioral medicine.* New York: Guilford.

Leonard, K.E., Roberts, L.J.(1998). Marital aggression, quality, and stabi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Finding from the Buffalo newlywed study. In T.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mney, D. M., Brown, R. I., & Fry, P. M.(1994).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Prescriptions for chan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237-272.

Roy, M.(Ed.).(1982). *The abusing partner: An analysis of domestic battering.* New York: Van Nostrand Rienhold.

Straus, M.A.(1971). Some social antecedents of physical punishment: A linkage theory interpre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58-663.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Sugarman, D. B.(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Sullivan, C.M.(1991). The provision of advocacy services to women leaving abusive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1), 45-54.

Sullivan, C.M., Tan, C., Basta, J., Rumptz, M., Davidson, W.S.(1992). An advocacy intervention program for women with abusive partners: Initial e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3), 309-333.

Szalai, A.(1980). The meaning of comparative research on the quality of life. In A. Szalai, F. M. Andrews(Eds.), *The quality of life: Comparative studies.* London: Sage.

Tan, C., Basta, J., Sullivan, C.M., Davidson, W.S.(1995). The role of social support in the lives of women exiting domestic violence shel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437-451.

Walker, L.(1979). *The battered women.* New York: Harper and Row.

Walker, L.(1983). The battered women syndrome study. In D. Finkelhor(Ed.), *The dark side of families.* Beverly Hills, CA: Sage.

Weitzman, J., & Dreen, K.(1982). Wife-Beating: A view of the Marital Dyad.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May, 360.

(2006. 08. 31 접수; 2006. 12. 23 채택)